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청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킵 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건강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기록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 985-9500  
Fax (732) 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 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값어치 풍부한 느낌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중  
제5주일  
2021년  
2월 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욕기 7,1-4.6-7  
# 화답송 시편 147(146-147), 148-2.3-4.5-6 (◎ 3-참조)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9,16-19.22-23  
#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마르코 1,29-39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 / 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2/08/21	창세기 1,1-19	마르코 6,53-56
화요일 02/09/21	창세기 1,20-2,4-7	마르코 7,1-13
수요일 02/10/21	창세기 2,4-9.15-17	마르코 7,14-23
목요일 02/11/21	창세기 2,18-25	마르코 7,24-30
금요일 02/12/21	민수기 6,22-27 / 야고보서 4,13-15	루카 12,35-40
토요일 02/13/21	창세기 3,9-24	마르코 8,1-10
일요일 02/14/21	레위기 13,1-2.44-46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31-11,1	마르코 1,40-45

## 미사지향

### 연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홍순연(비안나)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이근병 - 유베로니카

### 생미사 (봉헌자)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임문수(마르코) - 메타천 구역, 요셉회
- 정영철(프란치스코) - 채 바오로, 데레사 올드브릿지 구역
- 김종화(아가다) - 가족
- 성 라파엘라, 성 미카엘라 - 요셉회
- 서 펠릭스, 김유진 - 가족
- 이종민(예비자 미카엘), 김진희(아우델리아) - 성 미카엘라
- 이예원(김벌리 데오도라) 가정
- 류 제시카 선생님 - 이서형(요안나)

## 교무금 납부 안내

오현주 (1-2)	이종권 (1-3)	오용덕 (1-2)
백영숙 (1-4)	허중 (2)	<b>합계: \$980</b>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 미사 참여 36명	<b>합계: \$803</b>
--------------	------------------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봉헌(생미사/연미사) 예물
- Payable to OLM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용덕 헨리코, 김삼식 베드로, 오옥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백영숙 헬레나, 유희자 베로니카

## 라디오 미사 (주파수 FM 100.1MHz)

- 주일미사와 같은 시간에 FM라디오를 통한 미사를 시행합니다.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주파수를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주십니다.

## 공지 사항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안내**  
- 본당 주임신부님의 7주간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손님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를 집전 해주십니다.  
- 1/31과 2/7 두 주장은 오후 12시 30분에 미사가 시작됩니다.  
- 1/31, 2/7 이튼타운 한인 성당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님  
- 2/14, 2/21 체리힐 한인 성당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님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2월 17일 오전 9시 영어미사  
- 2월 17일 오후 6시 Prayer Service & Distribution of Ash (영어)  
- 2월 17일 저녁 8시 한국어 미사

**# 2020년 교무금 납부 증명**  
- 2020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구역별로 달력을 배부합니다.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 2차헌금 안내**  
- 2월 7일 주일 미사 중 교구청 가톨릭 신문 “The Catholic Spirit” 지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KCB 가톨릭방송 TV 채널 및 방송시간 변경**  
- KCB 가톨릭방송이 2월 7일부터 TV 방송 시간과 채널이 변경됩니다.  
- TV(주일미사) 방송: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KBN- 스펙트럼 Ch 1493/ 옴티엄 Ch 1153  
- 라디오 방송은 매주 토, 일 오후 5시 FM 87.7 을 통해 방송되며, 모든 방송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실수 있습니다.

##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 2. 현금으로 납부**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 마르코 복음 1,29-39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가 톨 릭 교 리 상 식

**Q1.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그렇듯, 하느님과 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리라 봅니다. 한편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쉽게 지치잖아요? 지향을 가지고 나의 바람을 아뢰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귀 기울인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더 즐거울 것입니다.

**Q2.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을 땐 어찌 해야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매번 보이는 것을 찾으니까 말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 여러 소음과 섞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침묵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모으세요. 그렇게 주님께로 향할 때 새의 지저귀, 바람의 움직임, 빗방울의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며 광야를 건넜고, 긴 유배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뤄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바람을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루카복음 11장 9-13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복음 묵상 나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질문1. 내가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질문 2.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Q3.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Q4.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서는 일생에 딱 한 번 분심없이 묵주기도를 바쳐봤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관광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흔들려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였다고요. 농담 같은 말씀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바랄 때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심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며 잔잔해진 내 마음 위로 떠오르는 거겠죠. 물에 떠있는 낙엽은 그냥내버려 두어야지, 치우려고 휘휘 저으면 고요했던 호수는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 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두세요. 분심이 생겼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분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게 됩니다. 잠시만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내 마음이 아닌 하느님께로 깊이 잠기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이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참고〉